



봉사부 탐방기 (방송사역팀)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여유!

방송실 사역팀

이번 봉사부 탐방은 방송사역팀이다.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여유! 방송사역팀을 방문해 보았다.

Q. 평일, 주일 어떤일을 주로 사역하시는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일, 수요일 설교 편집, 수요찬양 믹싱, 주일자막작업 각부속실 음향/영상 A/S, 영상 촬영 및 편집, 정신여중고 채플지원 각 부서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본예배 세팅 및 지원, 각 부속실의 음향/영상 사고들을 해결하러 다니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주일의 여러가지 행사를 세팅 및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Q. 특히 언제나 가장 바쁜지?

일단은 주일에는 눈섭 휘날리게 새벽부터 예배가 끝날때 까지 뛰여 다니야 되어서 제일로 바쁘구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테입과 CD 를 제작을 위해 편집 및 제작 의뢰로 인해 바쁩니다.

Q. 보람을 느끼는 점이나 감사한점?

보람을 느낀점은 행사를 마치고 나서 "오늘 사운드와 영상 좋았어" 라는 격려 한마디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한 점은 늘 고생한다고 힘되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Q. 어렵거나 힘든사항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항은 없지만 하나를 말하자면 방송실의 공간이 좁아 봉사자 집사님과 지회 직원들이 앉으면 꼭 차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점이 힘든 사항이죠.

Q. 성도들에게 바라거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영상 촬영과 녹음 같은 경우 미리 지회 스태프들과 회의 하고 스케줄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케줄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된 스케줄이 있는 경우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1~2주 전에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부

<하회라 성도 간증>

저는 주님의 딸입니다.

최수중씨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는 정식으로 다닌 것은 7개월 전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부터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삶의 목적이 변화한 것이지요.

친정집은 대대로 불교집안으로 자연스럽게 미신도 믿어 왔고, 그러나 결혼 후 시댁이 기독교 집안이라 저는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던 중 교인에게 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저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안타까워 하셔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셨지만, 이겨내지 못 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15년동안 발길을 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내 곁에서 기다려 주셨어요.

어느날 친구가 크리스찬 서적을 선물로 줬는데, 촬영 시간이 미뤄지면서 쉬는 시간에 읽게 되었고,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너무 울어서 촬영장에 바로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서 동생에게 빌려주었는데, 읽고 난 뒤 동생도 감동을 받아 저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동생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심을 느꼈고, '이제 때가 왔구나' 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하자 남편 및 온 가족들이 기뻐하였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를 추천 받았는데 바로 주님의 교회였다.

주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저의 첫 기도는 친정엄마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기도하는 모습에 친정엄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지 결국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든 스케줄과 상황이 새벽기도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루가 감사함을 느꼈고 제 자신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남편기도, 가족기도, 그리고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예전에도 대화가 많았지만 더 함께 할 수 있는 대화도 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날 예배를 마치고 남편에게 '나 이제 주님의 딸' 이라고 말하자 남편이 뿔뿔이 기뻐하였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기도가 많이 하고 싶어 새벽기도에 참석했지만, 이젠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가야할 길이 달라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오늘의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통 권 제 2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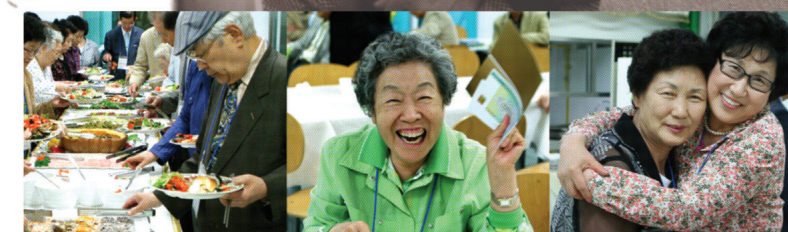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5월 24일



어르신 잔치

내일도 오늘만큼 행복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제일 행복한 것은 감사의 마음인 듯 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프타임 사역팀에서 '어르신 초청잔치' 를 21일(목)에 가졌다. 새벽부터 내린 비속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셔서 인생의 황혼기를 맛있는 점심식사와 웃음 한보따리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힘든 세월을 이겨내신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생활도 힘과 생동감이 넘쳐난다.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꿈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도 가지며, 복지사역본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경로대학' 을 준비한다. 내년 봄을 즈음하여 개교 한다는 소식이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이가 들수록 밝고 건강하게 더욱 좋은 삶을 살고 싶고 내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일도 오늘만큼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부드러운 봄비 속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으로 짧은 시간 귀한 만남에 감사를 전하신다. 서정하 집사

알기쉬운 수지침으로 복음과 건강을! 수지침 교실



지난 5월9일 수지침교실이 개강하였다.

국내외의 단기선교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 30명 선착순이라 하여 나름 오붓함을 기대하였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지난해 가을강의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으셨던지 보조의자가 강의실 뒷벽이 닿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부부 선교팀이 많은 듯 남자성도들도 사뭇 많았다.

강사는 김미혜 집사로 수지침 경력은 88년도에 입문한 올해 22년차. 수지침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소화불량, 고열, 연좌 등 응급처치에서부터 각종 통증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질환과 장기적으로는 척농증, 비염, 아이들 성장 발달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김미혜 집사는 수지침이 아폴로 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 경험을 말하며, 이제는 수지침이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친구가 될 정도로 수지침의 매니아가 되었다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10년간 불임이었던 부부에게 수지침 치료의 한 영역인 뜸으로 치료를 한 6개월 후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집사님 자신도 매우 놀라고 또한 이웃을 이롭게 하여 준 것에 참 기쁜 마음을 나눈다.

요즘은 뜸, 자석, 발 지압, 음식, 염파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수지침 대신 2006년부터 '서금(瑞金)요법' 이라 새로이 부르기로 하였고 그 의미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좋은 처방' 이다. '아무쪼록 수지침을 통해 내 가족과 내 건강을 잘 지키고 그리하여 교회일과 믿음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유용한 수지침을 있게 한 유테우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첫 강의를 닫았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더 깊이 더 멀리 더 많이 전하여지길 바란다. 김희선 기자

강의

매주 토요일 오전10-12시
5/9-7/25(6/6 휴강) 5층 제1세미나실

※아직 등록 못하고 첫 강의도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성도님들도 대환영이니 다음 강의엔 꼭 오시라고 전해드립니다.



2009, 피택자수련회

“주님, 제가 주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금) - 16일(토)까지 양평리조트에서 가진 피택자 수련회는 주님의교회 피택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꾼 준비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4개월 동안 주일마다 모여 피택 직분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내용들을 배우고 주방과 차량봉사 실습과 타교회 방문 등을 감당했고 성경일독과 새벽기도참여와 기도생활 등 경건생활에도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왔는데 이번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동역자로 함께 세우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찬양기도회를 통해 마음을 열어 감사로 시간, 시간 열어가기로 기도한 후에 담임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현재를 품고 미래를 향한 주님의교회 비전과 목회방향들을 알게 되었고, 예배사역, 복지사역, 봉사사역, 선교사역, 교육사역 등 우리교회의 사역본부에 대한 자세한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함께하신 부교역자들을 통해 전달 받으면서 앞으로 어느 본부에 속하든지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준비를 든든히 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 일은 모두 함께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에 ‘사역자세우기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성도간에 서로 교제하며 자



신의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새벽 경건회와 아침 식사 후 ‘항존적 사역비전 세움과 나눔’ 시간을 통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조별로 토의하고 정리하여 서로 발표하면서 주님의교회 항존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사역의 내용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에는 먼 길을 기꺼이 달려와 주신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회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교회의 역사와 지도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체사진 속에 우리의 모습을 담으면서 모두는 자연스레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2009년, 세워지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복된 열매들을 기대합니다.

피택자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6월 28일 창립기념주일 4부예배시에 임직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한 두려움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분들 위해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충성된 자지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잠 25:13)

박혜성 목사



한일병원 호스피스팀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도 어두운 부분이 항상 있다. 행복이라는 척도는 개인이 가지는 만족의 도에 따라 결정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행복과 불행, 빛과 어둠을 느끼곤 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느끼며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불행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행복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데 나를 비우고 내안에 있는 평안을 나에게 보이고

자기 만족 느끼는 것이 작은 행복이 아닐까? 생각도 들지만 세상에 어두움이 많구나하고 알아주어야 하고 밝은 햇살만 있는 세상이 아닌 줄 알아야

부정적인 어두운 면도 알아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 치료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병원 자원봉사자 모임은 11개 팀이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들,, 저희는 그중에 한 팀입니다.

한일병원 호스피스 햇수로 벌써 5년째를 맞습니다. 20명의 봉사자들이 6월 동안 주중에 봉사를 합니다. 쉽지 않은 봉사지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봉사를 할 시간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봉사를 하며 봉사자 한분 한분에게

사람이 중요함을 느끼지요. 봉사를 하며 나의 사랑이 한분의 영혼이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며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그 사랑이 환자분들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바라며, 봉사자들은 봉사를 하며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저희 호스피스팀에 자원해 주심으로 인해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해 드릴 수 있고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병원비 보조도 해

줄 수도 있어 봉사를 하면서도 늘 고마움을 느끼죠..

주님의교회 교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일병원 호스피스팀에는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봉사자 4분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전도회 이야기와 사역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교회안의 따뜻한 봉사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전도회 성도들의 이야기와 사역활동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2 여전도회



거제도 열방교회 방문기

5월 6일 수요일, 5월 월례회를 승합차가 15인승이기 때문에 임원들만 중심으로 거제도에 있는 열방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직접 뵙고 교제를 나누어야 그 교회에 대한 더 간절한 기도와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박원호 목사님의 취지를 받들어 방문을 결정했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너무 먼 길을 당일애 갔다 온다는 것이 부담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봉 집사님의 흔쾌한 운전 약속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힘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8시에 출발해서 꼬박 5시간을 달려가 열방교회에 도착해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이래서 직접 만나 뵈라고 하셨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뵙는 순간이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의 예배를 보며 전하신 이병도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 주셨던 많은 연단(미국에서 흑인한테 끌려가 살해되기 직전까지 간 일과, 하나님께 사원한 일,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진 일 등)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의 용수환 대접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점심을 먹으면서, 정작 우리의 후원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가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간절한 기도와 후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일정에 목사님, 사모님과 아쉬움의 악수를 나누고,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떠나와야 했지만, 회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열방교회에 대한 여운이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말 뜻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도 후회해야겠다는 다짐을 갖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열방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많은 성도들을 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정숙 집사

4 여전도회



구례 대연교회 방문기

5월6일 아침 7시, 교회에서 선교회 회원 9명이 모여 배현성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구례 대연교회 방문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모두들 기도로 준비한 때문인지, 날씨도 화창하여 우리들의 먼 길 길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식사로 거른 채 (집안일에 소홀하면 남편들의 뽀빠(?)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우리는 본연의 입구에 충실하기 위해 식구들의 식사는 준비해 놓고 나왔지만) 교회 봉고차량 1대와 자가용을 이용하여, 모두가 초행길인 구례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선교회 회장 집사님이 준비한 아침 겸 점심을 가는 도중, 마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장소와 같이 좋은 산동마을 이라는 곳에서 먹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발하여 오후 1시경 드디어 ‘대연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께서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교회건물과 사택이 따로 있어서 일단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대연교회의 약력과 그 고장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들으며 시원한 매실 차와 딸기를 대접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간 전도용 카스테라 70여 개와 선교헌금을 전달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도가 70대 노인 12-17명이 전부인 시골교회의 어려움과 전도의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지속적인 기도와 헌금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며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회장으로써 식사와 음료 등 모든 회원들의 먹거리를 뒷바라지한 김애란 집사, 카스테라를 헌물한 김영자 집사, 오고 가는 먼 길 운전으로 애쓴 윤정자 집사, 김광희 집사...이외에 같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헌금으로 애써준 4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정숙 집사

5 여전도회



5여전도회 사역이야기

지난 5월 13일 이른 아침9시부터 5여전도회 월례회 및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활성화와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라는 뜻에서 봄바람과 만개한 꽃구경도 할 겸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광릉수목원과 아프리카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어딘가에 꼭꼭 숨어있는 그옥한 식당에서 먹기 아깝게 차린 정갈한 밥상을 맛있게 먹고 또 허브농장도 방문해 차와 제품들을 몇 가지 샀습니다. 총무이신 유희정 집사님의 알뜰한 살림솜씨와 답사와 스케줄 구성으로 시간 낭비 없이 잘 먹고 즐거웠던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늘 집안일과 아이들과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모처럼 멀리 나와 다른 바깥공기를 마시니 너무 좋다는 의견과 함께 가끔 이러한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자주는 어렵지만 이런 야유회를 봄가을로 계획하고 있다하니 우리 5여전도회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5여전도회 구성과 사역을 소개하자면 60년에서~64년도 까지 여 성도님들의 모임이며, 경남 합천의 평지교회와 코스타리카에 계신 금상호 선교사님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하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1시 월단한 물가에 모여 월례회 겸 교제를 나누고 1시 반부터 2시간가량 수서복지관에서 반찬봉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님 이하 모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신다는 회장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교제를 나누며 서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고 내려놓고 기도로 간구할 때 위로가 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경험했고 좀 더 세분화된 모임을 통해 문제와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로 5여전도회가 위로와 봉사의 모임으로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내려놓음과 간구와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임으로 진일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희선 기자